

■ 지방선거 핫코너



“입후보 이렇게 하세요”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오후 남구청 회의실에서 6·2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승용 도지사 경선 당무위 소집 요구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당무위원 27명이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실시의 건’과 관련,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민주당 중앙당에 요구했다. 20일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재직 당무위원 61명 가운데 27명이 서명한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서가 이날 제출됐다. 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용두 장애인단체 제안 정책 이행 서약

박용두 민주당동당 전남지사 후보는 20일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동의 및 이행 서약서를 전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2010 전남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단체 요구안에 동의하며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전달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날 전남지역 1인당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재활복지계’를 ‘장애인복지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 16가지를 박 후보에게 요구했다.



입택 “참여당으로 광주 동구청장 출마”

입택 국민참여당 부대변인은 20일 “무기력화·공동화·고령화라는 ‘3화의 동구’를 문화·복지·경제에 강한 ‘3강 동구’로 만들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임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에서 민주당의 전횡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얼마나 많은 병폐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고스란히 시민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병이 프로야구 전용구장 대안 제시

윤병이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남구 제2선거구)는 20일 프로야구전용구장 건설 논란과 관련, 월드컵 경기장 건설 후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철거 그 자리에 1만8000석 규모의 프로야구 전용구장을 건설하고 기존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개·보수 후 아마야구 및 사회인 야구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또 야구장 주변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천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스포츠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선관위 내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2 지방선거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도 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각 정당 및 도지사·교육감선거 선거사무 전담자와 회계책임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요령 ▲각종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 회계사무처리 등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 선관위는 정당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게 될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과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노 지방선거 승리 당원대회

민노동당 광주시당은 20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6·2 지방선거 승리, 당원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노동·농민·학생·여성·청년 등 각계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윤민호 시장 위원장은 “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 초단체장, 시의원, 기초의원 3관왕을 반드시 달성해, 진보적인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광주의 대안야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장원섭 후보를 필두로 24명의 예비후보들과 3천 당원들이 광주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함미 3D촬영 등 정밀조사

어제 육상 이동 완료...함수 인양도 본격화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 함미를 육상으로 옮겨 절단면에 대한 입체(3D)영상을 촬영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함조단은 현재까지 함미 좌·우현 절단면과 함께 좌현 바다 상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외부 폭발력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쳤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함미 육상감시 결과 외부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적인 원인 규명은 함수 인양과 잔해물 수거 후에 가능하다”며 “버블제트 가능성을 포함해 아직 함조단에서 어느 쪽으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모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함수 인양 뒤 함미와 절단면을 비교해봐 폭발원인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관련 부분도 아직 결정적으로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미 절단면에 대한 정밀분석은 4개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 25명, 군인 22명, 외국 전문가 22명 등 모두 69명이 참여한다. 외국 전문가는 미국 15명과 호주 3명, 스웨덴 4명 등이지만 영국도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정밀분석팀은 평택 2함대사령부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다. 특히 주한 미 해군은 이날 “함수와 함미 사이의 잔해 예상지역 수색 및 기타 중심지역에서의 음파탐지를 통한 수색을 위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잠수활동을 미 해군 잠수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과 민간 인양팀은 함수 인양작업과 관련, 사고 해상이 오전에 너울성 파고 1.5~2m, 풍속 7m 정도에 흐르고 약한 이슬비가 내렸다가 오후 꺾에 따라 끊어진 세 번째 체인을 회수하고 추가 체인 연결작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누가 진짜 김정은?



왼쪽부터 마이니치 공개한 최신 사진, 16세 때 스위스 베른의 공립학교 시절, 김정일의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공개한 김정은 사진.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정은 사진 보도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듯하다. 우선 마이니치가 김정은으로 지목한 인물을 사진상으로 볼 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북한 당국이 나이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김정은은 1983년 또는 1984년생으로 알려져, 만 27세 전후로 봐야 하는데 사진 속의 남자는 도저히 20대 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진 속 인물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신문(마이니치) 사진에 나온 남자의 경우 적어도 30대 후반, 많게는 40대 중반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제의 남자 모습이 함께 잡힌 김정일 위원장의 김책제철소 시절 사진에 노동신문(3월5일자)에 실린 것에 맞춰, 북한 당국이 평양의 각급 기관과 기업 등에 신문을 배포할 때 내용이 보도될 지 시켰다는 마이니치 보도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가톨릭센터·광주극장·현대극장 등 광주시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근·현대건축물인 광주가톨릭센터, 광주극장, 현대극장 등이 각각 인권센터, 시네마 테크, 뮤지컬 전문 공연장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시는 46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이들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이를 반영해 올 상반기까지 문화거점재생사업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254억원이 투입되는 인권센터에는 인권자료관·도서관·전시관·홍보관·기념관·지원센터 등과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입주하게 된다. 각각 110억원과 104억원이 들어가는 시네마 테크에는 영화관, 뮤지컬 샵, 어린이시네마극장 등이 들어선다. /윤현식기자 chadol@

리더&피플 6.2 선거 (예비)후보자 필독!! 우리지역 (예비)후보자 검색 이벤트! 휴대전화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한빛고시학원 advertisement with large text and images of students. Text includes: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 79공무원 종합이론반/소방직 전문반, 7.4명 합격문제풀이, 서울시 9명 문제풀이 모집, 수석합격자 배출.